

26일~10월9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이정주 작 '살구꽃 피는 봄'



강숙자 작 '합화'

지역 여성 원로작가의 삶과 예술

40여년전, 지역에서 여성 미술가로 살아가는 건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씨를 뿌린 이들이 있었다. 지난 1982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미술가들이 작가 그룹을 꾸렸다. '광주여성화가회'라는 이름을 달고 출발한 모임은 임막임 작가가 초대 회장을 맡았고 강숙자 등 1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남경화랑 기획으로 창립전을 가졌다. 열악한 광주 여성 미술의 버팀목이 되며 꾸준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온 이 모임은 이후 광주전남여성작가회로 이름을 바꾼 후 면면히 역사를 이어왔다.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노정숙)가 정기전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

'사랑의 등불 예술 나눔 36년'이라는 타이틀로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 여성 미술계를 지켜온 원로 작가 6명의 삶과 예술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전이다. 특히 전시 뿐 아니라 후배작가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을 개최, 그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정기전 '사랑의 등불 예술 나눔 36년'

까지도 아우른다. 초기 태동한 지역여성 미술의 원류를 하나 하나 되돌아보며 함께 기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작가는 임막임·강숙자·최강희·고정희·이정주·고운숙 작가 등 모두 6명이다. 어느덧 80에 가까운 나이가 된 이들은 광주 미술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그 작품 세계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6명의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응집한 대작 4점씩을 선보인다. 여기에 35명의 후배 여성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담은 소품을 내걸어 모두 6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매일 한차례씩 진행되는 워크숍 '원로예술가 6인의 삶과 예술 40년'이다. 현재 병환 중인 임막임 작가를 제외하고 5일간 매일 오후 2시~5시까지 금남로 분관에서 워크숍을 진행한다. 27일 강숙자

작가를 시작으로 이후 최강희(28일), 고정희(29일), 이정주(30일), 고운숙(10월1일) 작가가 참여해 자신의 작품 세계 설명과 초기 여성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기록된다.

강숙자 작가는 "곧 있으면 우리 모임이 만들어 진 지 40년이 되는데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와 워크숍에 참여하게 돼 뿌듯하다"며 "우리 이후에도 쟁쟁하고 훌륭한 후배 작가들이 많이 나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노정숙 회장은 "원로 선생님들의 예술활동은 우리 지역의 역사이자 우리 여성 작가들의 시작을 조명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 매해 5~6명의 작가를 선정해 아카이브 형식의 정기전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여성작가회는 아카이브 전시와 함께 매해 지역문화연구원하는 스토리텔링 특별전도 한 차례씩 열 계획이다. 그 첫 전시로 광주 서장을 테마로 전시를 진행한다. 오는 12월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창 목담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창 문화의 발견과 예술 해석'이 그 첫번째 출발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대 패션·주얼리학부 졸업작품 패션쇼

'Beyond: 비욘드' 28일, 靑문화전당 야외무대

학생들의 특색 있는 개성이 돋보이는 실용적인 패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패션·주얼리학부 패션디자인전공(옛 의상디자인학과)이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제30회를 맞는 졸업작품 패션쇼 'Beyond: 비욘드'를 개최한다.

이날은 패션 트렌드 분석,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촉 등 통합적 학습 과정을 거친 패션디자인전공 졸업생 17명이 디자인 전개부터 소재 선택, 패턴, 봉제까지 전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실용한 작품 9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패션쇼는 '2019 ARDOR(아르더) 컬렉션'형태로 열린다. ARDOR는 실용적, 독창적, 예술적 감성을 지향하며 지난 2011년 광주대 의상디자인학과에서 출범한 패션 브랜드다.

/유연재 기자 yjyoo@kwangju.co.kr



신한복 (백소영, 임정하)



클림트 작 '키스'

미술시장 트렌드 반영 '광주국제아트페어' 막 내려

관람객 2만7000명·판매액 18억5000만원... 지난해보다 증가

미술시장의 흐름을 조망하는 제10회 광주 국제 아트페어(아트페어)가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광주 아트페어에는 2만7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판매액은 18억5000여만원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억7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고가의 작품 거래량이 많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미술시장의 침체와 추석 연휴 등이 겹쳤지만 이번 아트페어는 미술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카우스의 작품을 필두로 개인부스로 참여한 지역작가들의 작품 판매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올해 아트광주에는 독일,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페루, 아르헨티나 등 12개국 18개 해외갤러리가 참여했다. 2017년 6개국, 2018년 9개국에 비해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 그 가운데 남미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참여는 국

제행사로서의 외연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올해는 컨벤션센터 1,2,3관 전체를 전시장으로 사용해 넓은 통로와 부스 그리고 전시장 중앙에 카페를 배치했다.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배려했다. 또한 특별전 'Sculpture Project_art:Gwangju'의 9개 대형 조형물을 전시장 곳곳에 배치해 생동감을 연출했다.

행사기간 4일 동안 진행됐던 스페인 두반 갤러리의 T 셔츠 페인팅 퍼포먼스와 첼로 연주 콜라보는 아트페어 관람의 색다른 재미와 흥미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성과 대중성을 고려해 구성된 강연프로그램에는 관람객뿐 아니라 참여작가 및 미술관계자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었다.

'그림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의 강연, 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진행된 아트체험프로그램은 조기 마감에 이르러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김미은 기자 mekim@

'ACC 아카데미 step-up과정'

26일까지 수강생 선착순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과 함께 2016~2019 ACC전문인력 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역량강화 step-up과정'의 수강생을 26일까지 모집한다.

10월 1일부터 29일까지(오후 7시~9시) 모두 5회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다.

10월 1일 광주사회경제지원센터 협력으로 사회경제적기업가로 활동하는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인 이어 8일에는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업사 이블링, 비즈니스 중심으로' 등의 강연이 이어진다. 선착순 30명 모집하며 수강신청은 AC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교육비 2만원,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주 성산 '빛의 벵커: 클림트'

10월27일까지...비엔나 화가 작품 미디어아트로 재탄생

제주 '빛의 벵커'는 프랑스 외 국가에서 해의 최초로 개관한 아미엑스 전시관이 다. 아미엑스란 수심대의 빔 프로젝터에서 상영되는 작품과 스피커에 둘러싸여 움직이는 작품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몰입형 미디어아트다.

'빛의 벵커: 클림트'전이 오는 10월 27일까지 제주 성산의 빛의 벵커에서 열린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훈데르트 바서 등 유명 비엔나 화가 작품이 미디어아트로 재탄생해 관객들을 만난다.

전시관 내에서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가 역동적인 프로젝션 맵핑과

만나 작품 본래의 색인 금빛을 아낌없이 비춘다. 클림트 작품의 대표적 색인 황금색 색연, 만개하는 이미지는 가을의 풍요로운 이미지를 보여준다.

관객이 작품의 일부가 돼 그림을 감상하는 이색적인 체험은, 역설적으로 작품에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개관해 제주도 핫 플레이스로 자리잡은 빛의 벵커는 이 이미지와 음악을 경계없이 투사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작품과 하나되는 경험을 선사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